

전 남

국가계약법 개정 늦어져 나주혁신도시 공사 지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조속 시행을

정부가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혁신도시 이전청사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시행이 지연되면서 청사공사 발주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조속한 시행령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6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청사 신축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확대 적용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시 이후에 함께 개정돼야 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개정이 늦어져 이전기관 청사 발주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조속한 개정을 지난 18일 건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청사 신축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30%에서 40%로 높아져 약 1조원에 달하는 청사건 축비 가운데 4000억원 정도의 물량이 지역건설업체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1일 우정사업 정보센터가 조달청에 청사발주를 의뢰했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사업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사업의 공사금액 제한이 없었으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현행 30%에서 40%(타기공사 20%)로 10%포인트 늘어난다.

지금까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지역업체 지원을 위해 76억원(광역자치단체 및 WTO GPA 양허 공공기관은 229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전남 해조류 웰빙식품으로 만든다

바이오김밥·해초떡 등 기능성 제품 개발

전남도가 경쟁력이 높은 전남지역의 해조류를 웰빙식품으로 육성하기로 해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전국 생산량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해조류로 다양한 식품 개발에 나서는데 등 고부가가치(웰빙) 식품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친환경 쌀과 농수산물을 속성 발표시켜 맛있게 보관 기간도 늘린 바이오김밥을 개발하고 해초튀김, 해초피자, 해초

라면, 해초 떡 등을 개발해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두루 즐겨 찾는 저칼로리 기능성 제품을 개발해 나갈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제품을 개발하고 개발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성분 및 안전성을 검증받은 후 특허를 출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품질 좋은 원조 생산과 가공산업을 육성해 국내 소비 촉진 및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필수기자 bungy@

해남고구마 주식회사 설립

생산자협 참여 2013년까지 10억 목표

전국 생산량의 12%를 차지하는 해남의 대표 특산물인 고구마 주식회사 설립됐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남 군청 상황실에서 ‘해남 고구마 식품 주식회사’ 발기인 총회를 열고 임원 선임과 회장을 제정하는 등 설립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달말에 설립 등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면 고구마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구마 주식회사는 연간 고구마 6000t으로 고구마 페이스트, 전분 등 반가공 원료제품 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고구마 주식회사에는 사단법인 해남 고구마생산자협회 10개사가 참여

했으며 자본금은 1억 5000만원이다. 오는 2013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이사에는 이례류통합인 대표 김영진, 이사에는 (사)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 대표이사 오상진, 해남농산물류통합인 대표 박동호, 해미원영농법인 대표 양성대, 감사 새순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종광, 해남농우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인우씨를 각각 선임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고구마 주식회사는 고구마 가공산업을 주도할 법인체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고구마클러스터 사업 등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과 연계해 사업 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나주 봉황과출소 박정만·정기웅 경위 순찰 중 가스중독 일가족 구해 ‘화제’

나주 경찰이 순찰중 가스질을 식으로 사경을 헤매던 일가족을 구해 화제다.

나주경찰서(서장 박병동) 봉황과출소 박정만·정기웅 경위는 지난 16일 낮 폭설과 한파로 불판을 겪고 있는 각 마을을 순찰하던 도중 오리마을 조규광씨 집에서 일가족 3명이 가스질식으로

을 잃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을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겨 생명을 구했다.

사건 당일 조씨는 집안 보일러가 고장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임시 거처인 주방에서 잠자코 불을 켜고 있던 상태로 발견됐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형기자 chungj@



생태환경 사진공모전 최우수상 ‘어! 저기있다’

전남도가 주최한 ‘생태환경 디지털 사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여수 최병관씨의 작품 ‘어! 저기있다’. 전남도는 239점의 응모작 가운데 여수 여지민 최정갯벌의 생태계를 잘 표현한 최씨의 작품을 포함해 16점을 입상작품으로 선정했다.

전남도가 주최한 ‘생태환경 디지털 사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여수 최병관씨의 작품 ‘어! 저기있다’. 전남도는 239점의 응모작 가운데 여수 여지민 최정갯벌의 생태계를 잘 표현한 최씨의 작품을 포함해 16점을 입상작품으로 선정했다.

‘장흥 무산김’ 지리적표시제 등록

장흥군은 지난 2009년 장흥 키조개에 이어 ‘장흥김’에 대해 국립 수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리적표시제 등록증을 교부받아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무산(無酸) 김 양식을 선포한 장흥군은 청정

한 바다에서 생산하는 무산 김에 대해 2009년에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지리적표시제 등록까지 받음으로써 장흥김의 명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계기로 친환경 장흥김이 제

값을 받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상표 개발 유성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장흥대생이·꼬시래기 등 장흥의 특산물에 대해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지리적표시제’는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명칭, 품질, 기타 특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명성에 비롯된 경우 해당 지역 특산물임을 표시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완도군의회 구제역 방역 근무자 격려

완도군의회 박삼재 의장과 의원들은 지난 18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및 AI 유입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근무하고 있는 군의원 단도리 등 방역초소 4개소를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박삼재 의장은 “구제역과 AI 여과로 확산 및 양계농가 등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추운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근무자들은 한시도 긴장을 풀지 말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새얼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지역화합”

이진 완도부군수

“지역화합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이진(58) 완도군 부군수는 “지금까지 쌓아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 테크노폴리스’ 완도군의 미래를 열어나갈 새로운 시책개발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 출신인 이 부군수는 광주 송일고와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74년

영암군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전남도 투자유치기업유치담당, 복지정책담당, 노인복지과장, 해양항만과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최경숙씨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취미는 테니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Includes a large table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details. Features the company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